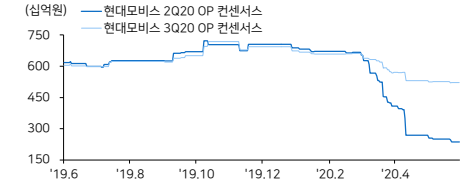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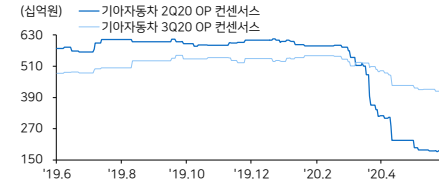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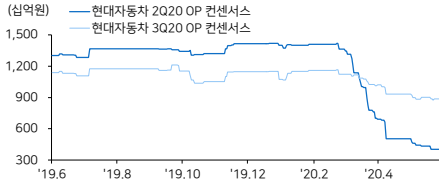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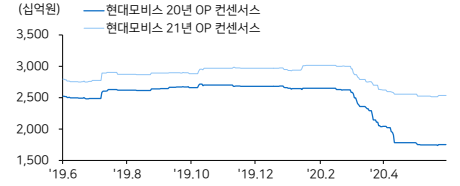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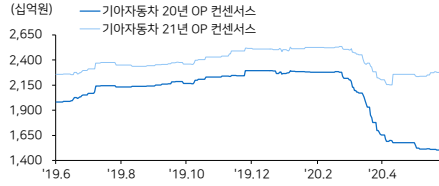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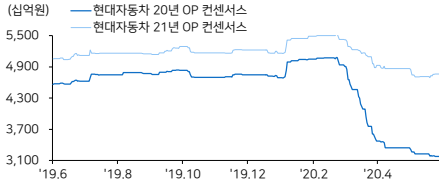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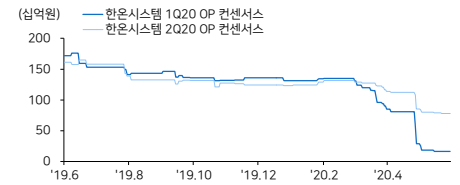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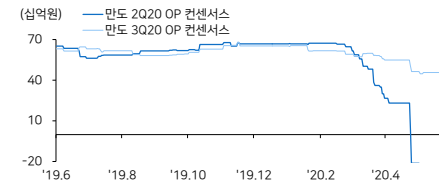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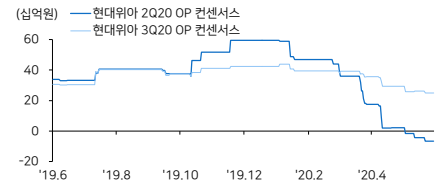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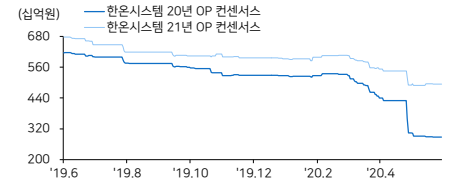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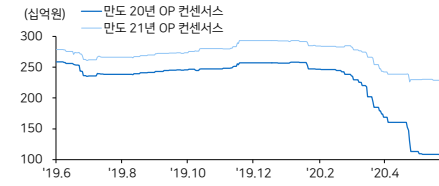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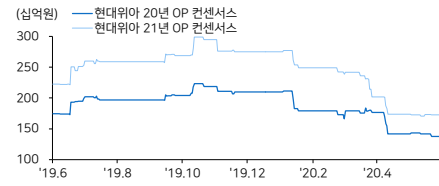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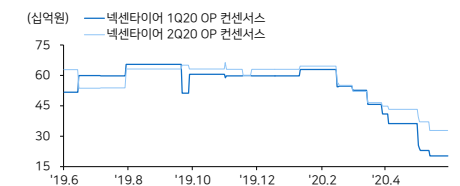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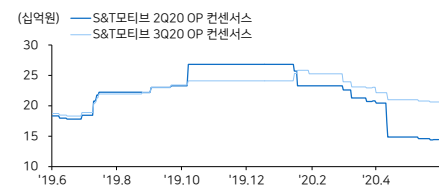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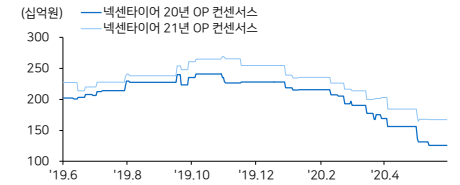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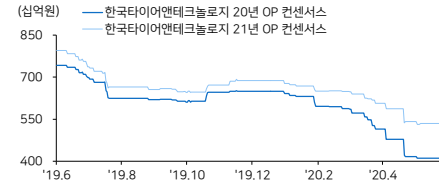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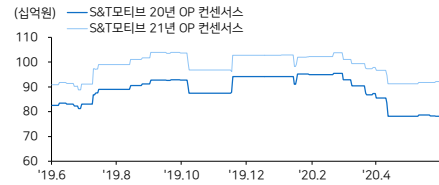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위기에 강했다... 현대·기아차, 글로벌 점유율 高高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절벽에 직면한 1~4분기 현대·기아차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됨.
<https://bit.ly/2UMpnnA>

현대차 '남는 전기 배 쓰는 전기차' 출시 (전자신문)

현대차가 전기차 배터리로 저장된 전기를 배다 쓸 수 있는 전력망연결(V2G)형 전기차를 올 하반기부터 출시. V2G를 탑재하면 가정이나 건물 등 시설에 전기를 공급해 전력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정전 예방이나 전력 재판매까지 가능.
<https://bit.ly/2C7cCSO>

제고 쌓여... 주자광판 확산 현대차 (동아일보)

현대차는 지난달부터 울산공장 주변의 임시 부지를 주차 공간으로 빌려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생산 차량이 팔리지 않아 공장 안에 있는 차량 공간이 부족해졌기 때문. 현대차 울산공장의 수출과 내수 생산 비율은 6 대 4 정도.
<https://bit.ly/30DNhndr>

포드·폭스바겐, 전기·자율주행차 공동개발 (IT조선)

포드와 폭스바겐(VW)이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 양사는 신기술 개발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분담하고 테슬라, GM 등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함.
<https://bit.ly/2MYvplj>

현대차 펠리세이드·GV80 생산 이르면 16일 오후 재개될 듯 (한국경제)

협력업체에서 조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 여파로 멈춰선 펠리세이드와 GV80 생산라인이 이르면 16일 오후에 재가동. 고용노동부 등은 사고가 발생한 덕양산업으로부터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
<https://bit.ly/3dXr5Pb>

모빌리티, '호'로 확대. 정의선, 미래차에 힘 쓴다 (이데일리)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비전으로 내세운 현대자동차가 모빌리티 전담 조직을 확대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함. 현대차는 기존 팀 단위로 있던 모빌리티 관련 부서를 실업으로 승격.
<https://bit.ly/2MTZou0>

마힌드라 '수익 안나면 정리'... 쌍용차 생산 길질길 (조선닷컴)

쌍용차 최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쌍용차 지배권을 포기할 수 있다.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은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힘. 마힌드라가 사실상 쌍용차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쌍용차는 생산의 길질길에 놓임.
<https://bit.ly/2N1ktDm>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아이웨이즈, 7월에 유럽에 상륙 (글로벌비즈)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아이웨이즈가 오는 7월 유럽 시장에 진출. 중국 자동차가 유럽시장에 진출하기는 아이웨이즈가 처음. 아이웨이즈는 U5 오프로드 모델 약 500대를 유럽 시장에 출시.
<https://bit.ly/2ZwAJrC>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